

# 통일선보

무소속대변지

제22호 [주제 제2752호]

주제 112  
(2023)년 5월  
27일  
토요일  
음력 4월 8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도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 현철해동지 서거 1돐에 즈음하여 묘소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현철해동지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5월 19일 신미리에국렬사릉을 찾으시였다.

강순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이 동행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참다운 혁명가적품성과 고결한 인간미를 지니고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자그마한 가치나 사심도 없이 헌신한 혁명전사의 진실하고 결곡한 모습과 값높은 생을 회억하시며 현철해동지의 묘소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아들이며 주체혁명이 낳은 특출한 충신원로인 현철해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나라가 최악의 국난을 이겨낼 때에도, 국가방위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때에도 언제나 한번 잊으신적 없는 사랑하는 전사, 항상 곁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던 현철해동지의 모습을 보고 또 보시며 오래도록 심중의 대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주체혁명위업을 위한 길에 한생을 바친 로혁명가의 공적은 우리 당과 국가의 력사와 더불어 불멸할것이며 현철해동지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애국렬사릉의 추모비앞에서 조국청사에 수놓아진 려사들의 고귀한 삶이 후세토록 존경과 명예의 단상에서 영생하기를 기원하시며 숭고한 경의를 드리시였다.

본사기자

## 천만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는 숭고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

— 한해전 잊지 못할 불멸의 화폭을 다시금 되새겨보며 —

5월의 하루하루가 흘러가고있다.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과 날들로 뇌리에 깊이깊이 새겨진 달이다. 건국이래의 대동란이라고 말할수 있는 가장 존엄하고 엄숙한 시련의 시기가 도래했던 지난해 5월, 악성비루스의 류입이라는 현실앞에 누구나 불안과 초조감으로 심장이 얼어붙었던 그때, 날이 갈수록 이 땅에 차고넘친것은 령도자를 우리러 더치는 고마움과 걱정, 목소리였고 행복의 눈물이었으며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애국과 애도의 눈빛들이였다. 그 나날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다시없는 행운을 소중히 새겨주며 전설처럼 태어난 이야기들은 얼마이며 펼쳐진 숭고한 화폭들은 또 그 얼마였던가. 그중에는 태양의 가장 가까이에서 빛나는 삶을 누린 한 로전사에 대한 감동같은 이야기도 전해지고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엔 한생토록 잊지 못할 숭고한 사랑과 도덕의리의 화폭으로 또였어 새겨져 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총장, 김정일총장 수훈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총고문 조선인민군 원수 현철해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5월 20일 오전 13시 신미리에국렬사릉을 찾으시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총고문인 조선인민군 원수 현철해동지의 영결식이 5월 22일 오후 신미리에국렬사릉에서 엄숙히 거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음속에서 경애하는 그이께서 지새우신 낮과 밤은 그 일미이며 걸으신 길은 또 얼마였던가. 온 나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심혈을 심혈을 쏟아부으시던 그 나날 조선로동당을 총직하게 받들어온 로전사를 잃은 원수님의 아픔까지 겪으셔야만 하셨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을 누구도 헤아릴수가 없었다.

그에서 TV화면으로 비쳐지는 경애하는 그이의 존안을 우러르며 인민들은 쏟아져내리는 눈물을 견잡지 못했다. 지금도 사람들은 심장에 새겨안고있다. 로전사의 생애를 두고 거듭거듭 하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가슴뜨거운 말씀.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존엄한 선군길을 생각할때면 우리 장군님의 그림자, 유능한 정치군사보좌관이 되어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총직하게 받들어온 현철해동지의 모습이 제일먼저 떠오른다고, 수령의 성스러운 력사속에 빛나는 혁명전사의 삶이야말로 가장 값높은 인생의 최고정화이라고, 로혁명가는 비록 우리의 곁을 떠나가지만 현철해라는 이름은 장군님의 존함과 더불어 영원히 기억될것이며 그의 고귀한 넋과 정신은 날로 승상장구하는 우리 당의 위업, 위대한 우리 국가와 공화국무력의 눈부신 강화발전과 더불어 영생할것이라고.

하나 사람들은 다는 알수 없었다. 사랑하는 로전사의 생명을 한시라도 더 이어주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얼마나 값고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또 기울이시였는지. 그로써 얼마후 새로 나온 기록영화 《빛나는 삶의 품》 32 《태양의 가장 가까이에서》를 보고서야 수령께서 전사에게 부여하신 사랑과 정, 의리의 세계를 다소나마 알수 있었다.

사람들 누구나 나라의 운명, 자신과 가족들의 운명을 두고 걱정하고있던 그때 이 땅의 모든이들의 운명을 두고 제일 걱정하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자신의 피와 살점과도 같이 소중한 인민, 그들 한사람한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려 크나큰 피로움과 안타까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기록영화들을 볼 때마다 매번 커다란 감동을 받아왔지만 이번처럼 눈물을 많이 흘려보기는 처음입니다.》, 《의식을 잃은 혁명전사의 모습을 보고 또 보시며 그의 심장의 박동을 이어주시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피로움을 금치 못해 하시던 우리 총비서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은 이 가슴속에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새겨졌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지니신 혁명적정신과 의리의 세계는 동서고금에 찾아볼수 없는 가장 뜨겁고도 열렬한 사랑이고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기록영화를 보고 러친 각계층 주민들의 목소리였다. 사랑과 의리! 이 말이 생겨난 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의리에 대한 이야기가 력사의 갈피에 새겨져왔는가. 그러나 혁명전사의 생명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고 받으시고 모든 사업을 뒤로 미루시고 전사의 마지막길을 지켜주시는 그릇된 진실하고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 숭고한 동지애와 도덕의리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며 내세워주시던 로전사의 생애를 조금이라도 더 이어주시지 못하시겠어 그리도 피로우시여 함박을 꺾지새우시던 경애하는 그이, 전사의 령구를 몸소 메시고 한결음한결음 무겁게 걸음을 옮기시던 그이, 람홍색 공화국기에 소중히 감싸안아 전사의 마지막길을 바래워 드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식어버린 로전사의 심장에 자신의 영원을 사랑부어주시려는듯 고인의 유해에 한줄한줄 흙을 얹어주시던 경애하는 그이, 떠나간 로전

사를 다시한번 뜨겁게 포옹하시던 비석을 힐끗 그리안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하고 숭고하신 모습을 인민은 영원히 잊지 못할것이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이 세상 모든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으며 성장해온 로전사의 값높은 한생을 보여주는 기록영화의 매 장면들은 수령과 전사사이에서 이어지는 가장 숭고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를 감명깊게 안아보게 하는 잊을수 없는 순간 순간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의리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깊은것인가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 기념행사에서 하신 연설에서 혁명학원출신들 가운데에 당에 끌어들여 총직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 투쟁한 충신들이 수없이 많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현철해동지도 다름아닌 만경대혁명학원출신이라고 또다시 뜨겁게 추억해주신 사실과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기념 련환모임에서 떠나간 전사의 생일을 잊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주시며 열렬한 사랑과 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에 대해 토로하던 로전사의 손녀의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통하여 다시금 느낄수 있다. 현철해 국방성 총고문의 서거 1돐이 되던 지난 5월 19일 이 땅에서는 만사람을 감동케 하는 또 하나의 뜨거운 사랑과 의리의 전설이 새겨여졌다. 온 나라 일을 돌보시는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미리에국렬사릉을 찾으시고 그의 묘소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던것이다. 나라가 최악의 국난을 이겨낼 때에도, 국가방위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때에도 언제나 한번 잊으신적 없는 사랑하는 전사, 항상 곁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던 현철해동지의 모습을 보고 또 보시며 오래도록 묘소앞에서 심중의 대화를 나누시던 자로운 아버지, 온 나라 인민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뜨거운 격정을 삼키였다. 이날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는 현철해동지 서거 1돐 추모대회도 엄숙히 진행되였다. 이것이 어찌 현철해 국방성 총고문에겐 베풀어진 사랑과 믿음이었는가. 시련과 역경이 앞에 가로놓일수록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더 굳게 단결하고 그 위력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철석의 의지를 안고서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과 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에 더 묘소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던것이다. 나라가 최악의 국난을 이겨낼 때에도, 국가방위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때에도 언제나 한번 잊으신적 없는 사랑하는 전사, 항상 곁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던 현철해동지의 모습을 보고 또 보시며 오래도록 묘소앞에서 심중의 대화를 나누시던 자로운 아버지, 온 나라 인민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뜨거운 격정을 삼키였다. 이날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는 현철해동지 서거 1돐 추모대회도 엄숙히 진행되였다. 이것이 어찌 현철해 국방성 총고문에겐 베풀어진 사랑과 믿음이었는가. 시련과 역경이 앞에 가로놓일수록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더 굳게 단결하고 그 위력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철석의 의지를 안고서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과 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에 더 묘소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던것이다. 나라가 최악의 국난을 이겨낼 때에도, 국가방위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빛내어주시는분도, 전쟁로병들을 혁명의 로세대, 영웅세대로 값높이 내세워주시고 해마다 전승절을 승리자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는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시며 로병대원들이 몸소 참석하시어 추하연설도 해주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분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의 승리상에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라고 불멸의 친필로 새겨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이뿐이 아니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하시고 옛날부터 묘에는 묘주가 있다고, 그런것만큼 지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희생된 인민군렬사들의 묘물에도 응당 묘주가 있어야 한다고, 바로 우리 당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유망무명의 인민군렬사들의 묘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임무수행 중 장렬한 최후를 마친 해병들의 묘소를 찾으시어 떠나간 용사들의 동사전을 마지막까지 다 돌아보시고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며 합장묘이기때문에 묘주가 따로 없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시

고의 묘주가 없다는 법은 없다고, 용사묘에 응당 묘주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이들의 묘주는 최고사령관인 내대이 경축하는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시며 로병대원들이 몸소 참석하시어 추하연설도 해주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분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의 승리상에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라고 불멸의 친필로 새겨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이뿐이 아니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하시고 옛날부터 묘에는 묘주가 있다고, 그런것만큼 지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희생된 인민군렬사들의 묘물에도 응당 묘주가 있어야 한다고, 바로 우리 당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유망무명의 인민군렬사들의 묘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임무수행 중 장렬한 최후를 마친 해병들의 묘소를 찾으시어 떠나간 용사들의 동사전을 마지막까지 다 돌아보시고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며 합장묘이기때문에 묘주가 따로 없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시

본사기자 유금주



# 강대한 힘, 일심단결은 승리를 부르다

은 행성이 조선을 주시하고있다. 단순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증폭되는 의혹의 주시이다.

보통의 계산법으로는 산출해낼 수 없는 힘의 세기가 비약적인 상승세도로 질주하는 기적, 혹심한 곤란과 시련은 말할것도 없고 도수나 범위에 있어서 그 류례조차 찾아볼수 없는 야만적인 압살의 광풍에도 끄떡없는 저력에 대한 놀라움의 주시이기도 하다.

바로 이것이 정의를 지향하고 짓눌려 살기를 원치 않는 세인의 목소리이고 또한 공화국을 말살하려고 오랜 세월 그리도 갖은 발악을 하다 기진한 적대세력의 안방에서 울려나오는 말이기도 하다.

물론 조선을 알아야 한다는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세계를 지배한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행성의 흐름을 확실하게 주도해나가는 명실상부한 선도자로 급부상한 조선의 지위는 세인의 이 갈망을 더더욱 강렬하게 해주고있다.

조선을 알고싶어하는 그 갈망을 해소시키는데는 결코 정확한 말이 필요하다. 한마디면 충분하다. 김일성광장을 보라.

이 광장에 력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가장 위대한 국가의 영상이 비껴있다.

## 1

공화국이 지닌 강대함의 실체를 우리는 김일성광장에서 본다. 말이나 글로써는 다 표현할길 없는 불가항력, 5천년민족사의 숙원인 부국강병의 대업을 이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힘이 영웅히 파시되는 김일성광장.

지구상의 가장 호전적인 무리들을 짓누르는 장엄한 열병의 대오, 무적의 철갑대오가 그 얼마나 보무당처럼 발구름소리 높이 울리고 지시를 뒤흔드는 광음을 이 광장에 얼마나 많이도 울려들었는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격동과 흥분으로 달아오르던 가슴의 열기가 지금도 식지 않는다.

장엄하고도 위풍당당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과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된 김일성광장.

우리 국가를 세계최강의 전령로 역세게 떠받치는 주체조선의 강대한 힘, 세기를 두고 제국주의와의 치열한 대결전들마다에서 혁혁한 군공을 세운 무장대오가 광장을 힘차게 누벼갈 때에 광장에 열광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제국주의폭제를 완벽하게 제압 분쇄할수 있는 절대적힘을 비축한 최강의 병기들이 지축울리며 전진해갈 때에 광장을 휩쓸었던 놀라움과 경탄, 총격의 열풍.

돌이켜보면 김일성광장에서 모든 열병식은 조선이 두려워할 원수, 굴복시키지 못할 원수란 결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과 함께 절대적승리에 대한 부동의 심신을 백배해준 열병식들이었다.

언제나 승리자들이 들어선 광장이었고 위훈과 군공의 광장이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치고 광장이 없는 나라가 없고 그 광장에서 열병식을 하지 않는 나라도 없다.

그러나 력사를 소급해보면 침략자가 총 한방 쏘지 않고 강압한 나라의 광장을 요란스런 군악을 울리며 짓밟는적도 있고 힘이 약한탓에 쳐들어온 강도의 땅크가 제 나라 광장을 사정없이 물어뜯는 참상을 한번 한마디 못하고 바라보아야만 했던 그런 민족도 있다.

성대한 열병식을 벌여놓고 기세를 돋구었지만 쳐들어오는 제국주의의 횡포한 무력앞에 정예의 강군이라 일컫던 열병대오가 물먹은 담벽이 되버리고 발전된 무장장비를 갖추었던 부대와 병사들이 군기를 내던지고 서슴없이 회기를 들었던 그 굴욕을 력사는 수복하고있다.

광장이 넓고 으리으리하다고 하여 또 그 광장에 열병대오를 빼곡이 채운다고 하여 강한것이 아니다.

힘을 표방하고 기세를 돋구던 수많은 광장들이 비극의 광장이 되고 패전의 시골들이 드리운 침침한 광장으로 화려한 광장을 세우는 수없이 목격하였다.

어떤 위인, 어떤 장군을 모시였는가에 따라 광장이 승리의 광장이 될수도 있고 비극의 광장이 될수도 있으며 열병대오가 강군의 징표가 될수도 있고 약종의 징표가 될수도 있다.

김일성광장은 안도의 수복속에서 진정한 조선의 첫 무장대오를 결성하신 20대의 청년장군, 강대성을 자랑하던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신 강철의 명장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키우신 불패의 강군이 펼쳐온 불멸의 전승사가 아로새겨져있다.

그 전승의 전통을 이어 미래와의 대결전에서 언제나 패승한을 안아온 승자들을 향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환히 웃으시며 보내주시는 축복이 있고 오늘날 공화국을 절멸시키려고 피를 물고설쳐대는 제국주의동맹을 놀리던 최강의 군력을 다져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철의 기상이 어리여있다.

문노니 이 행성에 이런 위대한대오가 승업하며 굳지높은 광장이 있다던가.

결출하신 명장들이 품들어 키우고 다져주신 필승의 대오가 어찌 강대하지 않을수 있으며 그 대오가 굽어치간 광장에 어이 승리와 영광이 빛발치지 않을수 있느냐.

전군의 첫 기슭에서 기관총을 메운 마차로 기계화총대를 대신하였던 군대가 원자탄을 거머쥔 제국주의의 항복서를 밝고 이 광장에 안고있는 7.27의 기적. 부르조아출판물들이 경악을

표시했듯이 《철회의 불퇴진지를 가을바람이 수수밭을 건너가듯》하는 조선인민군앞에서 미제의 《상승사단》들은 련이 피멸되었다.

후날 미국의 전쟁사들이 인정한바와 같이 1950년대에 당한 미국의 패배는 《기적할 정도로 쓰라린것》이었다.

이 쓰라림은 지금까지도 미국에 있어 난치병이다.

조선은 단 한번도 미국에 이 쓰라림을 치유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미국이 세계에 대고 떠드는 군사적허세는 그 어느 약소국에 없는 들이떡질지 몰라도 조선에만은 결단코 통하지 않았다.

날로 승승장구하는 조선의 위력, 제국주의를 악몽과 고비에 쓸어넣는 칠당병기들앞에 언제나 무릎을 꿇어야 하는것이 피할수 없는 미국의 숙명이 되고있다.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 외세에 나라를 강탈당하지 않으면 안되던 그 세월 독립을 부르짖으며 사들이 추켜들었던 화승총의 사거리는 이것 150m.

눈물겹고 가슴터지는 항거의 150m에서 오늘날 저 우주만리로 비약적으로 추기쳐오른 조선의 국력과 존엄은 얼마나 눈부러 아득한 창공에서 눈부신 빛을 발산하고있는것인가.

이 전변, 이 기적, 이 전설의 실체를 김일성광장은 자랑찬 열병의 대오로 증명하고있다.

열병의 주로는 비록 길지 않아도 그 대오가 새겨온 위훈의 백전백승사는 세기를 넘어 이 광장에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공화국의 인민들이 김일성광장을 승리의 광장이라 자부하고 광장이 자리잡은 거리를 승리거리라 부르는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이 광장에선 천년, 만년 열병식이 진행한다고 해도 그것은 언제나 전승의 열병식이 될것이며 승리만세의 합성만이 터져올것이다.

《오늘 세계를 좌우지하는것은 미국이다. 그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이 세계에서 오직 조선뿐이다. 결국 오늘의 세계를 좌우지하는것은 조선이다.》 이것은 언제인가 서방의 어느 한 신문에 실리었던 글의 한 대목이다.

무슨 힘으로 비대한 제국주의를 좌우하며 다스리는가? 제국주의폭제와 강권에 휘둘러는 나라와 민족들이 그 폭제와 강권을 다스리며 좌지우지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조선의 신비스런 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고있으며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옛 격언에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또 그 누군가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그리지 못하는것이 유감이다. 눈으로부터 손을 거쳐 붓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열광하는것이 없어지는가.》라고 하였다.

백번 듣는것보다, 장황한 글줄을 읽는것보다 김일성광장에 한번 서보라.

조선이 틀어쥔 힘과 강대성을 보라. 김일성광장을 보면 조선을 안다.

## 2

한 해외동포교수가 한 말이 있다. 《우리가 북에 대해 명확하게 아는것은 딱 두가지가 아닐까 싶다. 하나는 우리가 북을 너무 모른다. 하나는 북이 세계에 대고 떠드는 군사적허세는 그 어느 약소국에 없는 들이떡질지 몰라도 조선에만은 결단코 통하지 않았다.》

이 교수가 말한것처럼 공화국을 몰라도 너무도 모른다는데 적대세력들의 비극이 있다.

오늘까지도 시대착오적인 객기와 광기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을 허물어보려는 광적인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있다.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는 침략전쟁연습과 악랄한 제재와 봉쇄, 낱음대로 낱음 《북인권》처럼, 변태적인 자본주의문물을 들이밀려는 교활한 술책...

그야말로 그 수법과 양상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있다.

하지만 그 망상은 어제도 그러했지만 오늘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나라들같은 조락이나 붕괴의 운명을 면할수 없는 시련과 난관, 슬막하게 조여드는 압박과 공세에도 조선은 흔들림없고 울려나오고있다.

오호러 류례없는 곤란과 악조건에서도 세계에 대고 자부할만한 기적의 산아들을 낳아어 탄생시키는 조선은 외부세계의 시각에서 볼 때 참으로 놀라운 나라가 아닐수 없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답은 김일성광장에 있다.

이 광장에는 그 어떤 체색으로도 그려낼수 없는 이 행성에서 유일무이한 감동의 화곡인 일심단결이 있다.

수령을 우리러 품목같은 만세를 터쳐올리며 이 광장으로 굽이쳐흐른 장엄한 군중시위대오는 이 얼마나 수령의 뜻을 받들어 더 좋은 래일을 안아올 찬만된 의지를 우리로 터친 대외들과 해외동맹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총성의 세계가 비껴있고 격정의 눈물과 격양된 기세가 노드쳐 흘러흐르는 김일성광장.

김일성광장이야말로 일심의 광장, 단결의 광장이다.

일심단결은 곧 사랑과 믿음이며 총성과 보답을 다하려는 뜨거운 진정의 몸집이다.

은 나라를 울린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음성이 추억깊이 울려온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고백, 마음속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이라고, 우리 인민모두가 무뎠무탈해져서서 정말 고맙다고 심중의 토로를 터치시킨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를 우리러 인민이 흘린 눈물.

정에 울고 사랑에 우는 인민. 독특히 알려진 김일성광장을 보라.

김일성광장을 보면 조선을 안다.

이미전부터 《백성이란 체적과 명예와 풀만 있으면 되는 황소무리》라고 공공연히 뇌까린 자본주의정치무대에서는 여전히 근로대중을 《못생림》, 《정치적 리용수단》, 《가치창조의 부속물》로 치부하고있다.

이런 사회에서 인민들이 우롱당하고 짓밟히는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선거철만 되면 정객들의 갖은 요설과 랑설이 소용공해를 일으키는 광장만 놓고보아도 막상 선거가 끝나면 속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들이 이 광장의 여기저기에 쓰레기처럼 덩굴고있다.

실업과 빈궁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앞날에 대한 비관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터뜨리는 울분이 자본주의광장들에서는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의 김일성광장을 보라.

세인을 격동시킨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김일성광장과 더불어 오늘도 뜨겁게 전해지고있다.

위대한 아버지의 열화같은 사랑과 은정에 목매는 사람들의 모습들 여기서 볼수 있다.

경도자의 정깊은 음성을 가까이에서 들을수 있고 그이의 자애롭고 친근하신 영상을 우리러 떠올수 있는 김일성광장은 행복의 광장, 영광의 광장이 아니던가.

매혹과 숭배가 용암마냥 끓어번지고 정깊은 인민을 만나게 되는것이 너무 기쁘시어 시종 환히 웃으시며 손들어 환호에 담뉘를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경도자와 인민사이의 혈연의 정이 가장 강렬하게 분출되는 김일성광장은 사랑의 광장, 정의 광장, 일심단결의 광장이다.

경애하는 그이께 달려가 안기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석단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은 천만금을 들여도 얻을수 없는 공화국인민의 참모습이다.

이런 사랑과 정은 뜻을 합치게 하고 신념과 의지를 굳건히 해준다.

그 신념과 의지는 무엇이던가.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를 따르는 도전과 난관을 박차고 원대한 리상을 향해 전진해나갈 높뛰는 맹세이며 조선의 지향이었어이고 조선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온 세상에 각인시켜주는 총천하는 용기이다.

그 맹세와 용기를 활화산처럼 분출하며 김일성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되던 대외들과 군중시위, 해외동맹의 그 거세차고도 장엄한 광경은 그대로 조선의 단결력의 힘찬 기상이며 과시이다.

그 대오와 대하마냥 도도히 굽이치는 일심의 흐름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함성과 환희, 회결과 랑만은 또 얼마나 가슴가슴을 벅차게 뒤흔드는것인가.

세차게 맥동치는 이런 기상, 열정과 패기는 세계의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자본주의나라들의 광장들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터뜨리는 시위자들의 중위와 집회가 지금 이 시각도 련일 벌어지고있다.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하여 사회의 각계층이 떨쳐나선 그 시위와 집회는 피말리는 제도에 대한 항거이며 죽는것보다 못한 처절한 삶에서의 탈출을 원하는 몸부림이고 모지름이다.

그야말로 용촉된 분노와 원한의 집합체가 바로 대중을 무시하고 천시하는 사회의 광장들이다.

너무도 대조적인 광장의 판이한 두 모습에 승승장구하는 사회상과 지리멸렬하는 사회상이 비껴있다.

자기가 사는 제도에 대한 믿음과 이 땅을 보다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려는 자각된 열의가 동진한 인민에게는 막아서는 도전과 광풍을 이겨낼 힘이 반복되고 지혜가 솟아올라온다.

그 인민들의 뜻과 마음이 합쳐지는 김일성광장.

경도자의 두리에 하나와 같이 굳게 뭉친 기상과 더불어 천변만화하는 세계의 흐름속에서도 오직 경도자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발걸음소리 터뜨리는 이 광장에는 언제나 신념의 노래만이 메아리치고있다.

일심단결로 승리해왔고 전진해왔으며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일심단결로 부딪히는 난관과 도전에 깃부시며 나아가갈 조선의 선언이 김일성광장에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조선의 기적과 신화, 조선의 일심단결을 알려면 김일성광장을 보라.

김일성광장을 보면 조선을 안다.

이 행성에는 제나라의 의미와 상징을 담은 광장들이 수없이 많다.

독립광장, 공성광장, 승리광장, 자유광장, 대중광장이라 부르는 그 많은 광장들에서 진행되는 행사도 부지기수이다.

문화회식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한 휴식광장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한 광장들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광장들이 해당 나라의 명소로 되고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될수는 있어도 한 국가의 정신과 위상을 집약적으로 상징하는 광장은 되지 못한다.

한방울의 물에도 우주가 비끼다고 한것처럼 김일성광장에는 조선의 모습과 목소리가 있으며 조

신의 기상과 넋이 있다.

그 어떤 원수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대한 힘도, 인류사에 지극히 그 어느 나라도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처절한 시련속에서도 굴함없이 일심단결의 힘으로 영광의 려정을 줄기차게 이어나가는 진함없는 진전동력과 빛나는 슬기도 이 광장에 다 어려있다.

《경도의 크기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작은 나라인 조선이 세계정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보통상식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이렇게 높고보면 조선은 확고히 세계정치의 중심국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자기의 심정을 펴려놓았다.

천만면 지대한 평가이다.

세계정치의 중심국 조선!

그의 말대로 보통상식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조선의 국력과 무시할수 없는 확고한 그 지위를 알려거든 김일성광장을 보라.

공화국에 대한 비방과 중상이 체질적인 악습으로 굳어진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아직까지도 조선을 다는 모르고 김일성광장을 모르고있다.

리성에 따른 판단능력이 결여된 이 적대세력들은 한사코 공화국을 말살하려는 책동에 부질없는 객기를 부려대며 힘을 소비하고있다.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는 조선의 대정적축전들을 숭한 위성을 띄워놓고 보고있지만 그 거대한 위력과 진정한 의미를 타산으로 짐재가 묻은자들은 전혀 가슴조차 못하고있다.

일찌기 고대그리스의 철학자가 자기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할수 없다고 말한바 있다.

날아갈 수 없는 사람도 몰락의 징조가 짙어지는 제국주의는 저들의 비참하고 가혹한 처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있으며 그로 하여 조선에 대한 측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다.

조선은 결코 제국주의의 허세성광기에 주점이 들거나 무릎꿇는 나라도 아니며 그 어떤 제재나 전쟁에도 굴복시킬수 있는 나라도 아니다.

자기의 지향과 목적을 위해 선명한 길에서 물러서거나 예들지 않는 강의를, 수령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뭉쳐 력사의 새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그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광장.

불의를 처갓기는 불패의 정기가 있고 부질할수도 거역할수도 없는 진리가 있으며 변색없는 지조와 단결, 원대한 뜻과 최상의 존엄이 있는 이 광장을 세계가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다.

사랑하는 국가가 펼칠 휘날리는 김일성광장에서 공화국인민은 눈부신 성공과 위대한 승리로 빛날 조선의 장창한 미래를 본다.

김태룡





# 새시대 평양번영기에 또다시 솟아난 인민의 보금자리

## 대평지구 살림집 준공식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가 결정한 살림집건설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대평지구 살림집 건설이 힘있게 밀려나고 있는 시기에 수도 평양의 대평지구에 현대적인 살림집이 일떠섰다.

모든것을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철저히 복종지향시켜나가는 위대한 당중앙의 숭고한 뜻에 받들려 국가적으로 튜레없이 방대한 과업들이 나가고 있는 속에서도 철거세대주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건설전선이 평양시교외에 펼쳐지고 대평지구 살림집건설이 당과 국가의 중대사로 강력히 추진되어 수도건설사에 자랑스럽게 한페이지가 새겨졌다.

다층, 고층살림집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게 학교와 진료소, 각종 봉사시설들을 그쁘려 갖춘 대평지구의 특색있는 새 건축군은 공화국인민 모두가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

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로동당의 은덕으로 사회주의문명이 융축된 인민의 새 거리, 보금자리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련이어 일떠서고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이는 공화국에 기쁨과 환희를 더해주며 대평지구 살림집 준공식이 2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덕훈 내각총리, 전현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박훈 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새살림집에서 살게 될 근로자들, 건설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김덕훈 내각총리가 준공사를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각별한 관심속에 추진되어온 대평지구 살림집건설이 완공되어 철거세대주민들이 새집에 입주하는 시각을 맞이하게 되

었다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아버지의 뜨거운 은정이 깃든 훌륭한 살림집을 받아안은 주민들을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는 대평지구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 구역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분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다시금 새겨주는 교과서적 실체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철거세대주민들의 생활상불편을 하루빨리 가셔주시기 위해 중요당의 때마다 인민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한 건설력량도 돌려주시였으며 최대비상방역기간에도 공사를 중단없이 밀고나가도록 하시고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아쉬움도 없는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러 깊이 마음쓰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뜻과 진정을 받들며 당결정을 기어이 관철할 충

성의 마음을 안고 완강한 공격적, 치열한 철야전을 벌인 건설자들의 견인불발의 투쟁과 성, 중앙기관, 련관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노력에 의하여 대평지구에 인민의 리상이 구현된 건축군이 자랑스럽게 솟아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다하여 기어이 실현해나가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국가활동의 불변의 원칙이며 일관한 혁명방식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추진되는 수도의 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온 나라를 뚫어주는 새로운 건설혁명은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고 문명에 인도하는 성스럽고 영예로운 사업이라고 하면서 그는 각 도건설련단의 지휘부원들과 건설자들이 당의 건설정책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를 우리 식의 현대적이고 문명한 도시로 꾸리며 지방건설, 농촌

건설을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일군들이 조선로동당의 인민관을 깊이 새겨안고 인민들의 편의와 리익을 도모하며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항상 고민하며 애써 노력하는 진정한 총부키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덕훈 내각총리는 새집의 주민들모두가 오늘의 기쁨을 소중히 간직하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맡은 일들을 잘해나가기라는 기대를 표명하였으며 모든 가정들에 화목과 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하면서 대평지구 살림집의 준공을 선포하였다.

참가자들은 인민이 반기는 일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결실을 이루어야 할 당과 국가의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정하시고 인민의 행복의 별칭지들을 끝없이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정에 넘쳐있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살림집과 학교, 유치원, 봉사시설들을 돌아보았다.

조선로동당의 다심한 은정이 습배인 살림집들을 보면서 참가자들은 평범한 근로대중을 새 문명의 향유자, 행복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뜨겁게 안겨와 눈시울을 적시었다.

그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리념에 이 땅위에 인민의 제일리익을 펼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며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의 성실한 맘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를 다짐하였다.

새시대 평양번영기에 이룩된 대평지구의 전변은 위대한 당중앙의 손길아래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되고 인민의 만복이 세세년년 넘쳐나게 될 공화국의 래일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었다.

본사기자



# 빛과 어둠의 두 세상

최근 남강원도 춘천지역에서는 건설업체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가 파쇼당국의 노동자탄압행에 항거하여 자기 몸에 불을 다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는 병원에 실려갔지만 다음날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그날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이었다. 가정과 사회의 따뜻한 축하를 받아야 할 이날에 남조선에서는 노동자가 축하의 꽃다발이 아니라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절명하는 기막힌 일이 생겨난것이다.

사람이 자기 몸에 인화물을 끼었고 불을 단다는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얼마나 살기 힘들고 앞이 안보였으며, 사회와 《정권》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얼마나 극도에 이르렀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겠는가.

본인은 남조선과 같은 반인민적인 사회에서 반항 또는 항의의 표시로 스스로 자기 몸을 불사르는 가장 극렬한 투쟁방법의 하나이다.

남조선에서 본인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벌써 반세기전인 1970년 11월 13일 남조선의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은 석유를 끼얹은 몸에 성냥불을

갓고 구조를 웨치면서 분신하였다.

《로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그는 열아홉살이 되던 해에 자신의 꿈인 재단사가 되지만 불과 한달만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가혹한 노동조건에 처하게 되었다. 하루평균 14~15시간, 한달에 28일을 기계처럼 혹사당해야 했다.

전태일은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평화시장》, 《동화시장》 등의 퍼북공작 노동자들로 《삼동천목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그 회장이 되어 노동자들을 계몽각성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왔다. 그러나 파쇼당국의 비호를 받는 기업측은 눈심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며 결국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암흑의 사회에 항거하였던것이다.

1985년 8월 15일에는 광주 금남로에서 건설노동자 투쟁일이 《8.15를 맞이하는 뜨거운 무등산이여!》라는 비호를 살포한 후 분신하였고 9월 17일에는 경원대학교 학생 송광영이 《학원안정법》반대와 광주학생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라고 웨치며 자기 몸에 불을 달았다.

1986년 4월 28일 서울대학교 학생 김세진, 리재호는 전방부대 입소거부 시위 도중 《반전, 반핵, 양키고흠》을 웨치며 몸에 불을 달았다.

그해 5월 20일에는 서울대학교 학생 리동수가 문익환목사의 강연회도중 《파쇼의 신봉 전두환을 처단하자!》 등을 웨치며 분신하였다.

6월 26일에는 남조선주민 강상철이 민주화운동 탄압금지과 광주대학살 진상규명, 직선제개헌을 요구하며, 11월 5일에는 경성대학교 학생 진성일이 《건국대학교 통성사건 해명, 독재타도, 미제축출》을 요구하며, 1987년 3월 6일에는 호남대학교 학생 표정두가 《내각제 개헌반대, 장기집권 음모 분쇄, 광주사태 책임지라.》면서, 5월 17일에는 노동자 황보영국이 《독재타도,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웨치면서 분신자결하는 등 남조선에서는 반인민적인 사회제도와 당국의 악정에 항거하여 분신자결하는 현상이 해마다 꼬리를 물고 계속되어왔다.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집회와 시위를 벌이다 못해 마지막 저항수단으로 분신을 택하고있는 남조선의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

그 불길들은 암흑의 사회를 불살라버리려는 필사의 몸부림이었다. 파쇼살인 《정권》에 대한 화형식이였다.

그렇게 전태일이 쓰고 수많은 노동자들과 청년들이 피로써 쓴 분신의 역사, 항거의 력사가 어언 50여년이 흘렀지만 인간답게 살아보려는 남



남조선은 구조적으로 대기업을 비롯한 몇몇 특권층만을 위한 사회이고 대다수의 근로자는 인생들은 언제 가도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불우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는 썩어빠진 사회이다.

사회의 물질적부를 창조하면서도 향유하는 권리는 빼앗기고 한갓 말하는 기계, 권력자의 치부의 수단으로 되어 뜯기우며 사는 불쌍한 인생들이 남조선말고도 이 행성은 얼마나 많은가.

지구상에 국가가 생겨 수천년, 근로의 땀을 흘리는 인민은 언제나 정치의 관심밖에서 놓이고 학대당하고 버림받았다. 정치의 주인, 사회의 주인자리는 인민대중이 아니라 극소수의 특권계층, 지배계급이 독차지해왔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당시 세계인구의 1%에 해당하는 부호들이 69%의 재산을 합친것보다 2배 이상이나 많은 재부를 가지고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극소수 부유층이 사회적부의 대다수를 독차지하고있다. 그들이 고급주택과 별장, 자가용비행기까지

가지고 거들먹거리고있을 때 수백수천만의 근로대중은 거리와 골목에서 굶어죽고 일어 죽고있는 형편이다. 부의부, 빈익빈의 현상이 날로 심화되는 참혹한 현실을 두고 미국의 언론들까지도 《한국에는 손살같이 늘어나는 재산이 있고 다른 국에는 끝없이 더해가는 빈곤이 놓여 있다.》고 개탄하였다.

이런 어두운 행성에서 유독 밝은 빛을 뿌리는 나라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참다운 인민의 나라 조선이다.

인민위권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이 땅위에 참다운 인민의 세상을 펼쳐주고 빛내주시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으로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을 따듯이 품에 안으시고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고계신다.

지난해 4월 평범한 근로자들이 보금자리를 편 보통강강안다락주택주공 준공식에 참가하시었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격정의 눈물속에 고마움의 인사를 거듭 올리시는 새집의 주민들에게 인민을 위한 무조건적인 복무를 당풍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세상이라는 말은 그 어떤 표어가 아니라, 자기의 주권을 자기의 손으로 역세게 떠받드는 우리 인민은 이 땅의 모든 문명과 행복을 마땅히 누리려 할 당당한 주인들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가꾸어 가시는 황홀한 인민의 세상에서 2023년의 이해에는 화성지구 1만세대의 새집들이 광명이 펼쳐지고 인민을 위한 대규모건설장들이 또다시 건설되고있는가 하면 각지의 농촌들과 지방들에서도 새집들이소식이 련일 전해지고 령도자의 관심속에 로동자재육경기도 펼쳐져 온 나라가 날마다 명절처럼 흥성이고있다.

《우리같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리상으로 그려보던 현대적인 살림집을 무상으로 받아안고보니 당의 은덕에 어떻게 보답하였으면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당이 제일이고 인민이 주인된 내 나라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너무도 꿈만 같아 새집에 섰뜻 들어설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농장의 모든 농장원들이 이렇게 한날한시

에 궁궐같은 새집을 받았습니니다. 남너로소모두가 너무 기뻐 흥겨운 춤무를 떠날줄 모릅니다.》

《이 세상에 나라는 많고 많아요 우리 나라에서처럼 국가가 근로자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지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술취하면 어떤 맨 대학에 간 동물들이나 사회의 여러 초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였습니니다. 하지만 이번 체육경기에 참가하고 나니 김철로동계급의 한 성원이 된 영예와 긍지가 가슴속에 짙 차오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 제일 가까이에 나의 일터가 있고 나의 땅, 나의 량심도 소중히 자리잡고있다고 생각하니 온 세상이 나를 부러워하는것만 같습니다.》

누구나 한복소리로 타놓는 이 격조와 고마움의 웨침, 근로하는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된 참다운 인민의 세상, 행복의 세상에서는 남너로소모두가 격정에 겨워 부르는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노래가 날과 달을 이어 끝없이 울려져오고있다.

허성철



로동자를 비롯한 근로인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이것은 비단 그만이나 아니라 남조선의 수백수천만 각계층이 수십년세월 바라고 피리치게 웨치던 삶의 정당한 요구이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은 바란다고 이루어지는것인가.



# 파멸의 낭떠러지로 질주하는 《3 두마차》

얼마전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서방의 주요7개국수뇌자회의가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을 끈 것은 회의의 테두리안에서 일본과 남조선, 미국사이의 쌍무 및 《3자수뇌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회담들에서는 일본과 남조선사이의 반공화국공조를 강화하는 문제, 그 무슨 《북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일본남조선 3자가 미사일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비롯하여 군사적결탁을 강화하는 문제,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주변나라들에 더욱 압박을 가하는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미국의 워싱턴에서 미국일본남조선 《3자수뇌회담》을 다시 열기로 합의하였다.

예상되었던바이지만 히로시마에서의 이번 쑥덕공론은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을 겨냥하여 이미전에 미국과 일본, 남조선것들이 진행하였던 밀담과 모의들에서 논의되고 합의한 문제들을 재확인하고 《3자공조》를 더욱 확대 강화하며 아시아관 나토인

《3각군사동맹》완성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불순한 모의 판이었다.

미국의 새로운 세계제패전략인 인디아태평양전략수행에서 제일 장애물로 되어온 것은 과거사문제로 인한 일본과 남조선사이의 모순과 갈등이었다.

이로부터 미국은 최근에 와서 이 문제를 더욱 중시하고 아시아의 두 주구를 상대로 회유와 압박의 양면전술을 구사하여왔다.

일본수상을 불러다 놓고 《조언》을 주기도 하고 군사대국화와 재침략등에 《지지》를 표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역도를 호출하여 《국빈환대》의 《단물》도 부어주고 일본과의 관계개선에서 남조선이 《양보》를 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로 윤석열역도의 섬나라해각과 기시다의 남조선행각이 이루어졌으며 종당에는 친년수석과 친일사대미국노가 《마을이 아프다》, 《대단한 용기》라는 말 몇 마디를 주고받은 것으로 일본의

일본조선의 단독 및 연합해 전쟁연습으로 하여 언제 핵전쟁의 불집이 터질지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전환경이다.

이번 주요7개국수뇌자회의에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역력강화조치에 대해 《도발》이니, 《불가역적인 핵포기》니, 《엄격한 제재유지》니 하는 도발적인 내용을 조야박은 《핵군축성명》이 별도로 발표된데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장소인 히로시마의 참변이 말해주는 것처럼 인류를 상대로 끔찍한 핵전쟁을 들볶은 나라는 미국이다. 그리고 핵무기를 남만저 만들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을 일삼으면서 핵없는 세계를 핵전쟁위험을 상시적으로 배반한 세계로 만든 것도 이번 회의에 참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다.

진정으로 인류에게 핵참화가 다시 들볶이질 것을 바라지 않고 세계의 비핵화가 소원이라면 그 나라들부터 자기들이 가진 핵무기를 전부 내놓으면 그만일 것이다. 이것이 핵무기없는 세상으로 가는 공정한 순서이고 진정한 로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닌 보살하고 미국의 지속적인 핵위협에 맞서 국가의 존엄과 최고이익, 인민의 안녕을 위해 불가피하게 갖추지 않으면 안된 공화국의 자위적역력을 문제시하며 《도발》, 《제재》 등을 운운한 것이야

말로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파렴치한 꾀비이고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나발에 윤석열역도가 목소리를 합쳐 《북의 도발과 위협》, 《강력한 대응》을 떠들어대고도 가관이 아닐 수 없다.

평화를 열창한다고 해서 평화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요7개국수뇌자회의에서 울려나온 《평화》라함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 윤석열역도의 《북의 도발과 위협》나발은 평화와 안전의 파괴자들의 뻔뻔스러운 너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미국의 핵범위를 고발하는 증언자인 히로시마는 핵전쟁위험을 가증시키는 불순한 세력들의 추악한 본색을 가리키는 든서로 우풍, 리용당하였다.

이번 수뇌자회담기간에 윤석열역도는 친미친일주구로서의 본색을 다시금 날날이 드러내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와 등을 지더라도 미국의 바지가맹이는 절대 놓을 수 없으며 반공화국대결야망실현을 위해서라면 친년수적인 일본과도 한이불에 들수 있다는 것이 역도의 속구구이고 더러운 매국매족의 기질이야.

이번에 바디를 건너가 일본수상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도 역도는 우리 민족에게 만고죄악을 저지른 일본의 사죄와 배상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머리를 조아리며 얼마전 기시다가 남조선행각기간 《개인적인 감

정》을 전제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하면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데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는 말장난으로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외면한데 대해 오히려 남조선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극찬하여 내외의 경악을 자아냈다.

섬나라것들의 핵오염수방류책동에 대해서도 황의는커녕 형식상의 《시찰단》을 견학형식으로 후쿠시마에 파견하는 놀음을 벌려 섬나라의 범죄적인 책동에 둘러리틀 서준 굴종의 화신 역시 윤석열역도이다.

친일매국역적 리완용도 무색케 할 이런 회세의 친일매국노가 있어 재침멸에 들른 기시다를 비롯한 군국주의후예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있다.

미일남조선의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이 흉물스러운 실체를 드러내고있는 오늘날의 위험천만한 사태는 우리 공화국이 자위적역력을 보충한 것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더욱 여실히 실증해 주고있다.

미국과 일본,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반공화국침략책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릴수록 자멸만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 민족과 인류의 평화지향에 역행하여 미국이 앞에서 끌고 일본, 남조선피뢰들이 뒤에서 미는 핵전쟁 《3두마차》가 종당에 갈 곳은 천길 낭떠러지밖에 없다.

본사기자 김 정 령



#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퇴진이 답이고 퇴진이 리익이다!》

## - 남조선에서 역적심판을 위한 대중적투쟁 련일 전개 -

사대매국과 반공화국전쟁대결, 파쇼독재에 매달리며 조선반도정세를 악화시키고 민생을 파탄시킨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분노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종교단체 등은 련일 시국선언, 결의대회, 초불시위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역도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대학교수, 사회원로들은 시국선언을 통하여 윤석열은 《주권》을 팔아먹고 평화를 내던지고 민족의 자존과 《국민》의 존엄을 훼손하였다고 규탄하면서 1년으로 충분하다, 더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기다릴 여유도 없다, 하루빨리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

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리고 《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되찾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시국회의》는 서울의 동대문, 광진, 성동 등 16개 지역에서 《시국초불》 집회를 열고 윤석열역도의 친일굴욕외교를 규탄하였다.

《민주로총》도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선포문을 발표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선포문에서 로동자, 민중에게 맹목한 윤석열이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없는 일본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우방국》을 도청하고 자국중심의 세계질서를 강요하는 미국에게는 한없이 굴종적이라고 단죄하면서 민족적자존심과 자주성을 내버리고 극단적인 친

친자 범죄자는 바로 현 당국이라고 주장하였다.

현 《정권》이 들어앉은 1년 동안에 민생,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탄되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러면서 초불을 쯤들로 만들어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켜야 한다고,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험난해도 가야 하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는 길에 각계 민중이 함께 서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집회참가자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퇴진이 답이고 퇴진이 리익이다!》, 《〈정권〉을 몰아내고 초불개혁을 이루어내자!》고 웨치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한편 서울주재 일본대사관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도 반 《정부》 집회가 진행되었다.

《민주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물러리노릇만 하고있다, 당국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고있는 일본에 한마디 항의조차 못하고있다, 윤석열이 굴욕외교로 전범국의 범죄를 옹호하고 재침야망실현에 힘을 실어주고있다 하면서 윤석열역도의 사대매국적행동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서울의 종로구에서도 윤석열역적패당의 교육정책을 규탄하는 《전국교직원로동조합》의 집회가 있었다.

집회참가자들은 당국의 친재벌적이고 편향적인 교육정책에 대해 성토하면서 교사들에 대한 임금인상, 교육조

건개선, 평등교육실현 등을 요구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남조선의 불교계 역시 서울의 숭례문앞의 대에서 《윤석열 1년, 퇴진이 답이다》라고 쓴 구호판들을 들고 《윤석열퇴진과 김건희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법회》를 열었다.

지난 19일에도 서울에서는 간호원들과 200여 대학의 학생 10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근로대중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짓밟는 윤석열역적패당에 항거하는 대규모적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반윤석열투쟁은 서울뿐 아니라 남조선 각지역에서도 거세차게 벌어지고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로동계, 진보정당들은 민생파탄, 민주실종, 평화위기를 초래



전라북도지역의 종교인들도 윤석열역적패당의 교육정책을 규탄하는 시국법회》를 열었다.



# 자멸을 초래할 어리석은 불장난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경기도 포천의 훈련장에서 그 무슨 《연합합동화력결핵훈련》을 벌이고 있다.

남조선호전세력은 다음달 중순까지 5차에 걸쳐 사상 최대규모로 벌어지게 되는 이번 훈련과 관련하여 《합에 의한 평화회전》이니, 《합도적인 첨단군사능력시연》이니 하고 떠들고 있다.

조선반도의 정세긴장이 극단으로 달달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자국적인 발언 한마디도 엄청난 후과를 몰아올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고 역사의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있는 교훈이기도 하다.

더욱이 정전상태의 조선반도에서 상대방을 《격멸》하겠다는 전쟁연습을 사상 최대규모로 벌이는 것은 극히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도발이며 엄청난 선전포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단독 혹은 타국과의 합동군사연습들이 벌어지는 하지만 특정국가를 《격멸대상》으로 정적이고 그 코앞에서 방대한 침략무력이 동원된 가운데 한두해도 아니고 장장 수십년동안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강행해오고 있는 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뿐이다.

지난 온 한해동안 전쟁연습의 화약내를 질게 피워온 내외호전세력들이 올해에

들어와서도 역대 최강기의 《프리덤 쉴드》합동군사연습, 사상 최대규모의 《쌍룡》연합상륙훈련, 연합해상훈련, 연합공중훈련, 《연합전대중합훈련》, 특수공공강하훈련, 기동 및 실탄사격훈련, 《비상작전훈련》, 《연합공공합동훈련》 등 크고작은 전쟁연습들을 꼬리를 물고 벌려놓으면서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북침을 위한 광란적인 전쟁연습장으로 만들어놓은 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과거 대결시대의 북침전쟁연습들을 되살리고 확대하면서 전쟁대결을 추구해온 것도 모자라 《격멸》과 같은 극히 자국적이고 피비린내나는 수식어까지 붙여가며 북침전쟁소동을 광란적으로 벌이고있으니 그야말로 전쟁과 대결에 미쳐도 더럽게 미친 호전광, 대결광들이 아닐수 없다.

현 정세는 핵전쟁의 문이 구에 달달은 정도가 아니라 리듬점을 넘어섰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 버리는 대규모불장난은 북침전쟁의 서곡이고 사실상의 예비전쟁이다. 얼마전 윤석열 역도가 일본의 히로시마에 제바라가 미국, 일본과의 편쇄적인 회담이란것을 벌려놓고 반공화국대결공조의 강화 등을 모의한데 이어 군사분계선지점에서 공화국을 겨냥

하여 요란한 총포소리를 울리는 것은 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광기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여실히 실증해 준다.

그 도발적이며 적대적인 총포성이 5차례 연이어 울리며 화약내를 가득 피워올릴 때 조선반도의 다치면 터질 군사적긴장이 얼마나 더 팽배해졌는가는 더 말할나위도 없다.

지금 무모하고 어리석은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과 함께 공화국을 겨냥한 핵전쟁화살을 최대로 당긴 상태이다.

현실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고 핵전쟁의 불기름을 시기각각 몰아오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가르쳐준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그 누구를 놀래워보려고 《격멸》이라는 요란한 수식어까지 동원하며 북침전쟁의 판을 크게 퍼놓았는데 도대체 《격멸》이라는 말뜻이나 알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용감하다는 것과 무모하다는 것은 뜻이 다른 말이다.

아이들의 불장난은 그것으로 그치지만 이번 전쟁연습과 같은 대규모불장난을 벌일 때에는 그것이 자에게 미칠 후과, 뒤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격멸》하겠다고 웨치는 상대는 세

계적인 군사강국, 최강의 핵보유국이다.

역적패당이 미국과 함께 군사분계선에서 1km밖에 안되는 곳에 《아파치》직승기와 스텔스전투기 《F-35A》, 땅크, 장갑차, 방사포 등을 갖다놓고 울리는 전쟁쟁음이 공화국에는 자멸의 무덤으로 줄달음치는 미치광이들의 비명소리, 겁먹은 개가 짖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비유하면 왕을 꼬나들고 거대한 바위를 찌르겠다는 현대판 돈키호테의 괴상일뿐이다.

윤석열역도가 미국상전이 《격멸》을 웨치니까 덩달아 성수가 나서 《격멸》을 부르짖는데 원래 철없는 코흘리개들이 큰형님의 힘을 믿고 우물렁거리 좋아하는 법이다.

그 《형님》이 그렇게도 세보이는지.

골풍의 눈에는 한없이 세보이겠지만 공화국의 눈에는 한갓 《종이호랑이》로 보일뿐이다.

공화국이 보충만 귀고있을 때에도 원자탄을 가지고있는 미국은 싸움판에서 얻어맞지만 하고 종당에는 퍼투성이 되어 《정전협정》이라는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된다.

하물며 공화국이 최강의 핵무력을 비축한 오늘 조미대결전의 승부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 아닌가.

미국이 공화국을 상대로 찍하면 《합동》이니, 《3각군사동맹》이니, 《다국적무력》이니 하며 이런저런 떨거지들을 다 그러모으는 것도 조미대결에서 수지와 패배의 시궁창에 빠진 악의 제국의 실상을 스스로가 적라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상전을 해내비처럼, 구세주처럼 믿고 그리고 썩어빠진 동아줄같은 미국의 짚어진 《핵우산》에 명줄을 걸고 주체당에도 《격멸훈련》이니 뭐니 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이 가중스럽게 그지 않는다.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권, 자위권을 행사하는 초대강국, 초강력을 비축한 핵보유국에 도발의 불을 걸어오는데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지 윤석열역적패당이 과연 알거나 하고 설쳐대는지 모르겠다.

허나 명백한 것은 제 죽을 줄도 모르고 발광하는 승냥이를 두고 사냥총을 내리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이다.

적대세력들은 전쟁광기를 부리면 부릴수록 핵강국의 조건경연에 더 가까이, 더 크게 들어서는 것으로 된다 이것을 투박로 알아야 한다.

무모한 《격멸》이 참혹한 자멸로 되지 않게 심사숙고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 것이다.

## 파쇼광의 낮간지러운 소리

요즘 윤석열역적 패거리들이 《5.18 정신》에 대해 입에 올리고있다.

얼마전에 광주에서 진행된 5.18 광주인민봉기 기념식에 얼굴을 내민 윤석열역도는 그 무슨 《기념사》라는데서 《5.18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이고 국가 반대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느니, 《5.18정신아래 우리는 하나》라느니 하고 너두리질을 하였다.

윤석열역도가 《5.18정신》에 대해 입에 올린 것이야말로 광주렬사들과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는 민성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

43년전 광주에 울리던 웨침은 《전두환타도》, 《독재철폐》, 《비상계엄해제》, 《민주주의개혁실시》, 《민주정부수립》 등이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역도는 무엇을 하고있는가.

남조선민심의 민주화요구에 역행하여 검찰파쇼독재를 실시하고있다.

윤석열역도는 집권하자마자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요직들에 검찰파쇼들을 올려앉히며 이어 검찰, 경찰, 《정보원》을 비롯한 옥압기구들을 내세워 민주개혁세력들과 이전 《정권》관계자들을 지리멸렬시키기 위한 탄압과 정치보복을 벌이고 자기의 비위를 거슬러는 정치적적수들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려는가 하면 생존권을 요구하는 근로대중의 투쟁까지

《불법》으로 몰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을 상대로 《대국민심리전》을 공포하는 것도 거리낌 없이 감행한 파쇼광도 다름 아닌 윤석열역도이다.

윤석열역도는 추악한 사대매국책동으로 민족의 존엄과 리의를 짓밟고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을 들쳐주는 천하역적이기도 하다.

《(한미동맹)은 혈맹이고 가치동맹이며 남조선의 생존과 번영의 담보》라느니, 《(한미동맹)은 세계적인 가장 성공적이고 강력한 동맹》이니 하는 얼빠진 껌뽀를 늘어놓으며 미국상전에게 남조선의 경제지리권을 통채로 넘겨바치고있는가 하면 미국이 저들에게 적대적인 나라들을 괴멸시킬하기 위해 만든 각종 《경제안보기구》들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상전의 패권전략실현의 돌격대가 되어 날뛰고있는 자들이 바로 윤석열역적패당이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자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에게 주는 보조금지불대상에서 남조선기업들을 제외한다는 것과 남조선기업들이 핵심기술을 넘겨바쳐야만 미국에서 영입할 수 있다는 등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듯하며 미국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저들의 안방들을 도청해도 《남조선의 변영은 미국의 회색과 현신우에 서있다》느니, 《악의가 없는 도청》이니 하는 쓸개빠진 너두리를 늘어놓으며 미국상전에게 아부하는 회색의 인간추물들도 윤석열역적패당이다.

민족의 피와 땀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사대매국무리인 윤석열역적패당은 남조선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며 미국상전과 함께 북침핵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불기름까지 몰아오고있으며 심지어 민족의 친년속적인 섬나라 구하는 근로대중의 투쟁까지

면서 이 불구대천의 원수들이 우리 겨레에게 저지른 과거죄악을 백지화해주고 군국주의부활과 제정체등에 날개를 달아주고있다.

뒤세기보면 미국과 일본은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에게 과연 무엇인가.

《우방》도, 《혈맹》도, 《보호자》도 아닌 침략자, 강점자, 불행과 재앙의 화근이다. 세인의 처를 떨게 한 광주대참사의 주범도 전두환군사파쇼도당에게 살인무기들을 쥐여주고 《광주를 무죄주적으로 진압》하라고 명령한 미국이다.

일본 역시 우리 민족에게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수 없는 대죄악을 저지른 범죄국가이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해 발광하는 간악무도한 날강도무리들이다.

이런 철천지원수들을 극구 찬미하고 아부굴종하며 민족의 존엄과 리의를 해치고있는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이 《양키는 물러가라!》고 웨치던 5월의 영령들의 정신에 대해 입에 올리는 것이야말로 후안무치와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변변스럽게 《5.18정신》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광주인민들을 비롯한 남조선민심을 낚아 최악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고 집권안정을 이루며 나아가서 재건전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흉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역적패당이 아무리 오그랑수를 써도 회대의 사대매국노, 극악한 파쇼광, 반공화국전쟁대결광신자, 인민을 동진 반역의 무리인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광주의 뉘과 정신을 이어 자주적, 민주주의적인 새정치, 새 생활을 지향하는 남조선 각계층은 지금 《이대》 못 살았다. 윤석열을 심판하자!》,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 퇴진하라!》고 웨치고있다.

본시기자 전 명 진

## 말말말)

###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

— 《윤석열(대통령)에게는 일본제국주의의 죄악을 용서할 권한이 없다. 일본내각의 야스쿠니진자참배같은 제국주의적준동을 저지할 의

린 글중에서) — 《윤석열덕분에 남조선은 일본의 안보를 위해 총대를 메고 방사능오염물질방류, 일본군성노예문제, 독도침략문제를 눈감아주는 일만 남았다.》 (남조선 각계층이 인터넷에 올린 글중에서)



같은 자리에서 자면서 탄뎀을 꾸는것을 동상이몽한다고 한다.

요즘 남조선에서는 윤석열역도가 《통일부》 장관 권영세를 앞으로 어디다 쓸지 고민거리라고 한다.

서로가 뭘 꿈꾸고있는지 그 단면을 보기로 하자.

《여보, 당신 열성 좀 작작 부려요. 그 《대통령》인지 《윤석열》인지 한것을 《대통령》자리에 앉히느라 수고한 값이 고작 《통일부》 장관인데 아직도 무슨 미련이 있어서 지랄인가 말이에요?》

너런네의 저런 지청구는 벌써 몇달째이다.

밤늦게 지친 몸을 끌고 집에 들어와 술 한잔으로 쉴 서대는 육체와 정신을 달래려면 매일이다싶이 이런 탁달지이다.

누가 그랬건가, 밤은 서정의 시간이라고.

서정은 무슨 말라빠진 서정은 고사하고 너런네의 양탈질을 기분 잡치고 술맛 잡친다.

(머리칼이 긴 반면에 생각이 짧은것이 너자라는 물건

같은일, 마른일 다 하고있지만 수고했다는 말도 아까와한다.

이렇게 살수는 없다. 권력은 이 권년세가 타고앉아야 한다. 못할것도 없다. 윤석열에 비하면 내가 한참 낫지 않는다.

4선《국회》의원에 장관경력이 있지 않는다. 여기에 《국무총리》경력까지 껴치면 더 좋지. 5선《국회》의원도 그 한방편이다.

어, 아직 시간은 있으니 좀더 방법을 생각해보자. 꿈이 달콤하니 쓴술도 같이 여겨진다.

... 한편 《통와대》에서는 윤석열역도와 《국민의 힘》 대표 김기현과의 밀담이... 《그래, 권년세가 정말 다름이. 《대권》까지 넘보단 말이. 《대권》이 뭐냐. 《물론입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 당대표를 칠지난 딱이처럼 여기며 우리 당안

## 《통산유모아》

《일심동체?》  
윤석열이 기자와 회견하고있었다. 기자: 《(조용한 내조)를 한다던 부인의 공제활동이 많아지고있다.》  
석열: 《(대통령)을 해보니 처가 관여할 영역이 적지 않더라.》  
기자: 《항간에서 《대통령실》이 아니라 《김건희실》이라고 하던데?》  
석열: 《(으로부터 《부부는 일심동체》라 했소. 《김건희실》이면 뭘 사면 메모리얼 파크》)《(국립추모공원)》라며 영어만 하지 않나요.》

《어느 나라 사람인가?》  
TV에서 《통산유모아》이 나오자 조동하생이 선생에게 물었다.  
《(대통령)은 어느 나라 사람이나석열: 《(대통령)을 해보니 처가?》  
《네 보기엔?》  
《미국사람.》  
《왜 그렇게 생각하냐?》  
《(거버먼트 어토니) (검사),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국립추모공원)》라며 영어만 하지 않나요.》

《(거버먼트 어토니) (검사),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국립추모공원)》라며 영어만 하지 않나요.》

남조선의 군부가 윤석열역도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적극 가담해나서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군부는 그 무슨 《북인권참상알리기합동토론회》라는것을 벌려놓고 공화국에 대한 《인권》모략자료들을 각급 부대들에 주입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의하였다.

그런가 하면 《통일부》의 《북인권기록센터》와 《국립통일연구원》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을 토론회에 초청하여 《2023 북인권보고서발간의 의미와 내용》, 《북의 사회통제와 주민인권》, 《해외시각으로 본 북인권실상》 등의 주제로 발표내용을 벌려놓았으며 《공보정훈》장교들을 내세워 반공화국《인권》모략내발을 붙여대며 대결광기를 부렸다.

남조선군 사병들을 공화국에 대한 극도의 적대식이 풀수까지 들어한 야수로 길들여 북침전쟁수행의 대모범으로 내몰려는 악랄한 흉심의 발로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집권초기부터 《북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위협이며 이러한 안보위협이 지속되는한 북인민군과 북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장병정신교육교과》를 군부대들에 배포하여 반공화국적대의를 불어넣기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해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1월에도 윤석열역도는 《국방부》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화국을 적대시하는 대결망발을 마구 쳐대며 군부대에서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의 도수를 높이라고 피대를 돌수었다.

눈섭미의 재앙도 가려 못보는 이 인간추물들의 어리석은 반공화국대결기조에 따라 군부대들은 장교들과 사병들에게 《북주적론》을 교취하다 못해 오늘에 와서는 반공화국《인권》모략자료들까지 주입

시켜 극악무도한 대결광들, 호전광들로 만들고 날로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정의의 위압과 비약적으로 성장화되는 군사적강세로 군부대에 만연된 염전염군분위기를 해소하여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라하고있다.

폭행과 폭언, 때문매덕 등 온갖 범죄가 란무하고 강권과 전횡,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부패한 무리인 남조선군부대들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만사람의 조소를 자아내는 회대의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오래전부터 남조선군은 강대국비명문화가 만연된 《허가받은 인권유린장》으로 락인되어 있다.

가혹한 기합과 폭행, 성범죄 등으로 자살과 탈영은 물론 총기탄사 사건까지 그칠줄 모르고 군기퍼현상이 우심하여 남조선의 보수언론들까지도 《폭력은 군을 유지하는 기본수단》이라고 개탄하면서 남조선군부대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군부대들이 당치고 당고 《북인권》을 떠벌이는것은 군내부에 만연하는 참혹한 인권실상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술책이며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용에 기절초풍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외교부》와 《통일부》, 인간쓰레기들모도 모자라 전쟁열에 들뜬 군부대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내몰면서 대결망발을 실현해보려 하고있지만 그것은 반공화국대결에 미쳐도 더럽게 미친 고 모략과 기만에 이끌고 난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더욱 여실히 드러낼뿐이다. 이 더럽고 사악한 무리들, 시정잡배들에게 민심과 여론이 침을 뱉고 단죄배격하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권순남

한 일 령





산 좋고 물 맑아 예로부터 금수강산으로 불리워온 이 땅에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명승지, 명승들이 수없이 많다.

신평군에 위치하고있는 신평금강은 아호비명산줄기에 자리잡고있는 명승지이다.

명승지들은 어느것이나 다 자기의 독특한 자량이 있는것처럼 신평금강을 대표하는 아름다움은 계곡경치이다.

신평금강은 좋은 골짜기로 이루어진 이채로운 풍경속에 청신함과 황

## 독특한 계곡미를 자랑하는 신 평 금 강

흡함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다른 계곡에 펼쳐진 가지가지의 경치와 명승들, 각이한 크기와 모양의 폭포들과 담소들, 층층이 단을 이루며 절벽을 따라 형성된 수림은 계곡미의 절경을 더해주고있다.

예로부터 북상야곡속에 묻힌 아름다운 골이라는 의미에서 도화동이라 불리워온 이곳은 높고 험한

산지에 깊숙이 들어앉아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관심밖에 놓여 있었다.

하나의 자연풍경을 보시고도 언제나 인민을 생각하시는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수수천년 묵혀있던 도화동은 신평금강이 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한껏 자랑하는 신평금강명승지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본사기자

## 아름다운 꽃풍경을 펼친 중앙식물원

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며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공화국의 식물과학연구기지이며 교육교양기지, 인민들의 문화휴식장소인 중앙식물원에 요즘 꽃계절이 한창이다.

마치 화려한 꽃잔치를 펼쳐놓은듯싶은 잔디폭포쓰로점이며 붉은꽃철쭉수, 향철쪽나무 등 신물식물물의 사연깊은 식물들에도, 두봉화와 붉은겹꽃복숭아나무 등 식물분류구의 다양한 품종의 꽃나무들에도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

장미원에서는 노랑해당화, 황매화 등의 꽃들이 매력적인 모습을 한껏 자랑하고 약초원에는 황복련의 꽃향기가

차고넘친다.

중앙식물원 일군의 말에 의하면 식물원에서는 3월중순부터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종류의 꽃나무들과 화초들이 마치 정해진 순서가 있는듯이 차례로 피어나 아름다운 꽃풍경을 펼친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4월부터 6월에 가장 아름다운 꽃풍경을 이룬다고 한다. 얼마 안 있어 함박꽃이 피어나는데 그 경치 또한 불만하다고 한다.

계절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중앙식물원의 풍치라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날마다 흥성이고있다.

참등나무꽃이 만발한 곳에서 즐기는 휴식의 한때를 보

내는 사람들도 있고 꽃나무 앞에서 교린의 설명을 들으며 자연관찰을 진행하는 어린 학생들도 있다.

곳곳에서 화관을 펼칠듯하고 아름다운 꽃풍경을 화폭에 담아가는 미술가들의 모습도 보인다.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송화거리와 새로 일떠선 화성거리며 붉은 평양의 거리들과 련호선실용장을 비롯한 전국각지에 중앙식물원에서 가꾼 꽃나무들이 가당치 않은 곳이 없다.

사람들은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난 중앙식물원의 풍치에서 더욱더 아름다와질 이 땅의 모습을 안아보고 있다.

본사기자 리 철 민



## 건강증진에 리용되는 은행나무잎과 열매

공화국에서 은행나무를 많이 심고 그 잎과 열매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리용하고있다.

평양시의 거리들과 각지에 심은 아름답게 단풍든 은행나무들에서는 해마다 많은 열매를 수확하고있다.

지난해에만도 평양시의 4만여그루 암나무에서 열매를 따들이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그 수확량은 대단히 많다고 한다.

공화국에서는 건강장수의 명약으로 알려진 은행나무잎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있다.

은행나무잎의 음료제조과

## 백사혈화

옛날 명궁으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따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활쏘기솜씨를 자랑하곤 하였는데 10대의 화살중 8~9대를 파격에 명중하곤 하였다.

그가 파격을 명중할 때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추어주면 그는 더욱 으쓱해하곤 하였다.

어느날 그는 한 기를 활쏘기를 보면서 머리를 끄덕끄덕할뿐 도무지 감탄하는 빛을 보이지 않는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기분이 잡쳐서 물었다.

《로인장도 궁술에 대해 좀 아시는 모양인데 제가 쏘는것이 어떻습니까?》

《인자의 궁술이 그만하면 괜찮아. 그렇지만 그속에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건 아니냐. 좀 숙련됐을따름이지.》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더욱 화가 나서 물었다.

《로인장이 제 재간을 우

## 우리 민족의 대중가무 - 농악무

예로부터 슬기롭고 정서가 풍부한 우리 선조들은 농사일을 하면서 대중적인 가무인 농악무를 즐겨 하곤 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농악무와 더불어 밭을 갈고 씨를 뿌렸으며 농악무를 신나게 벌리면서 곡식을 가꾸고 길어들이었다.

농악무는 언제나 온 마을을 들썩거리게 하고 일손을 다그치도록 고무하였다.

길을 뚫거나 물길을 내고 뚝을 쌓는 등 농사와 관련된 일이 벌어진 곳에는 언제나 농악소리가 높았으며 흥겨운 춤판이 벌어졌다.

하지만 일년치고 농악무가 가장 큰 규모에서 벌어지고 제일 크게 힘을 낸것은 모내기때와 김매기때였다.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쓴 농기를 선두에 든 농악대가 마을을 돌면서 한바탕 흥을 돋우어 사람들을 농사일로 불러냈으며 밭치뚝이나 논언저리에 서서 메나리(농부가의 한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선소리를 먹으면 뒤이어 서로를 받아가면서 성수가 나서 일손을 다그쳤다.

흥겨운 장단을 타고 울리는 청높은 농악소리는 농군들의 어깨를 들썩거리게 하였으며 흥얼흥얼 따라부르면서 힘든줄 모르고 신바람나서 일하게 하였다.

일참에도 농악무가 벌어졌으며 하루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농악대를 앞세우고 노래하고 춤추며 마을로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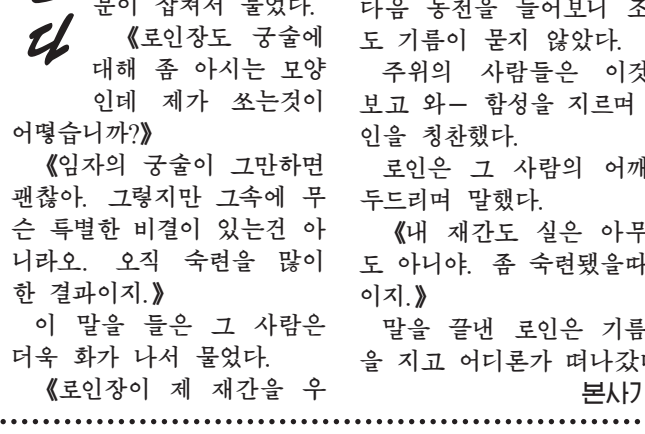
농악무에서 제일 기량이 높고 또 불만없는 것은 상모춤이었다.

상모춤은 농악무에만 있는 특색있는 춤으로서 열두발이나 되는 상모를 여러가지 모양을 지으며 돌리면서 우리 민족무용예술의 장쾌함을 한껏 펼치었다.

농악무는 타악기들의 장단가락과 새납의 선물가락으로 이루어져서 서로를 받아가면서 성수가 나서 일손을 다그쳤다.

흥겨운 장단을 타고 울리는 청높은 농악소리는 농군들의 어깨를 들썩거리게 하였으며 흥얼흥얼 따라부르면서 힘든줄 모르고 신바람나서 일하게 하였다.

본사기자



도라지는 가늘게 찢어 소금과 함께 주물러주면서 씻어 쓴맛을 우린다. 마늘은 다진다.

쓴맛을 우린 도라지에 고추기름, 다진 마늘, 사탕가루, 식초, 깨가루, 소금을 두고 고무 무친다.

이렇게 하면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도라지나물이 완성된다.

본사기자

## 단편소설 관 설 (2)

글 김석문, 그림 채대성

《휴... 이런걸 흔히 반전이라고 하지. 변호사가 되려면 저쪽은 해야 돼. 눈앞에서 불붙인 살인범을 놓고서도 무죄판결 이끌어낼 담기가 있어야 하거든. 민군은 보아하니 변호사감이야. 하지만 우격다짐으로 안돼. 근거가 있어야지.》

의아함과 호기심, 비웃음의 눈길들이 민계식의 몸을 울리도록 내리쬐었다.

민계식은 큰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가방을 열고 그안에 한손을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커다란 들맹이 하나를 불쑥 꺼내드는것이였다.

《예, 저게 뭐야? 저걸로 뭘하려고?》

놀란 눈빛들이 민계식의 중앙에 쬐어진 들맹이에 모여들었다.

천천히 머리위로 쳐들리우는 들맹이를 따라 휘둥그레진 실어쌍의 눈동자들이 초

점을 맞추었다.

《바로 여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옆에서 그 모양을 지켜보던 박준표가 가만히 민계식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플래쉬를 쬐는것은 재판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될수 없어.》

무죄의 근거가 손에 든 들맹이에 있다고 하니 그안에 무슨 소용돌음기라도 장막되어있는줄로 아는 모양이였다.

민계식은 피씩 웃으며 그에게 말했다.

《목숨이 같은건 없어. 이걸 그냥 돌인걸.》

그리고는 다시 머리를 들고 흥교수와 자기를 주시하는 여러 학생들을 향해 이야기 계속했다.

《아니, 그냥 돌이 아니라 피고의 무죄를 증언해줄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난데없는 돌의 출현에 좌중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문득 교수의 목소리가 정적 긴 방안에 파문을 일구었다.

《조금 당황스럽긴 해도 뭔가 독특한 면이 있구만. 그럼 박군의 기소장은 이미 들었으니 변호는 저 친구에게 맡기기로 하지. 기타 나머지 학생들은 기소인단이나 변호인단 등 각각 마음에 드는 역할을 맡아 수행하도록. 판결은 내가 내리도록 하겠소. 실제 피고는 언어장애로 말을 못하니 으로나마한거고. 그럼 민군, 피고석에 피고가 앉아있다 생각하고 변론을 시작하시오.》

《예.》

민계식은 옷매무시를 바로 하고 숨을 고르었다.

조금 동안이 흐른 뒤 민계

나섰던 유강산로인이라는 겁니다.》

순간 놀라움에 찬 소음들이 교실안을 흔들었다.

《그때 닭알을 날리구 오늘은 들맹이로!...》

《결국 전과자라는건가?..》

박준표가 참지 못하고 벌떡 몸을 일으켰다.

《민군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고는 형법 제264조 상습범 처벌원칙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여 징역 9년형을 언도받았겠군요.》

박준표의 눈짓을 받고 박준표가 입을 열었다.

《마땅한 동기가 있다면 범죄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자 민계식이 선선히 머리를 끄덕였다.

《웁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무엇을 들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교수님은 20여년전에 동일한 사건장에서 발생된 닭알투척사건을 상기시키셨는데 제가 파과제수를 위해 사건을 파악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 본행 비행기를 타러던 《대통령》 특사를 향해 붉은 뺨기가 담긴 닭알을 투척했던 인물이 바로 얼마전에 《외교부》 장관에게 돌을 들고

《뒤라? 자리에 앉아!》

《랑- 하고 교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배군은 주의 세번이요.》

다시 교탁을 툭툭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중하시오. 예, 여기는 모두 앞으로 범조인이 될 일념으로 그 준비과정을 밟고있는 학도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이요. 그러나 각각은 이동안에 각종 법률행위들에 대한 정확하고도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할뿐 아니라 범조인으로서의 기풍까지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오. 현대 법에 의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과정을 신성시하지 못하는것은 범조인으로서의 품격과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로 되고 오. 정식재판이 아니라 모의 재판이라 할지라도 법을 배우고있는 학도들로서는 응당 몸가짐을 바로하고 발언 하나하나도 심중히 해야 할것입니다.》

잔기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교실안에선 오직 흥교수의 목소리만이 계속 울렸다.

《예, 기소축을 대표하여 박군은 앞서 요구했던 징역 6년형의 주장을 거두고 피고에게 징역 9년형을 언도해야